



# IFLA WLIC 2018 KUALA LUMPUR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84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24-30 August 2018, Kuala Lumpur, Malaysia

## Final Announcement

[www.ifla.org](http://www.ifla.org)

# 2018 WLIC 참가단 결과보고

## 공공도서관협의회참가단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84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Assembly

24-30 August 2018, Kuala Lumpur, Malaysia



## 목 차

I. 출장개요	1
II. 대회개요	2
III. 주요세션내용	5
1. session 114	5
2. session 128	11
3. session 166	16
4. session 184	22
IV. 포스트세션	27
V. 참가단 주요 활동	33
VI. 도서관 견학	43
1.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43
2.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46
VII. 참가후기	50

# I 출장 개요

## 1. 출장 목적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적인 도서관의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
- 세계 도서관 관계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도서관 정책 및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 획득
- 도서관견학을 통한 향후 지역도서관 운영 및 발전방향 모색

## 2. 출장 기간 및 인원

- 대회기간 : 2018. 8. 23.(목) ~ 9. 1.(토) / 8박 10일
- 참여인원 : 15명 참가(남 6명, 여 9명)

번호	지부	기관명	성명
1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소순천
2	서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조금주
3	부산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원영희
4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기영
5	인천	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노재봉
6	인천	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	이대형
7	광주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서정란
8	대전	대전한밭도서관	온정미
9	울산	울산중부도서관	한은숙
10	충북	제천학생회관	최재명
11	충남	서천장항공공도서관	최용관
12	전북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이은미
1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김진명
14	경남	창원도서관	김금순
15	제주	한라도서관	김재선
15명 참가(남 6명 / 여 9명)			

## 3. 개최국가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4. 주요 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8.23.(목)	인천	쿠알라룸푸르	○ 인천 국제공항 집합 및 출발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도착
8.24.(금)	쿠알라룸푸르		○ WLIC 참가 등록, 한국어 참가자 모임
8.25.(토)			○ WLIC 참가 - 개회식, 전시회 개막
8.26.(일)			○ WLIC 참가
8.27.(월)			○ WLIC 참가 - 문화의 밤
8.28.(화)			○ WLIC 참가
8.29.(수)			○ WLIC 폐회식
8.30.(목)	말라카	말라카	○ 말라카 이동 및 문화체험
8.31.(금)	싱가포르	싱가포르	○ 싱가포르 이동 (입국수속)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공식 방문
9.1.(토)		인천	○ 싱가포르 국제공항 출발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해산

## II 대회개요

### 1. IFLA(International Fedration of Library Associatios and Institutions)

- 1927년 설립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도서관계의 국제기구
- 약 150개국 1,70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도서관·정보전문가의 국제적인 의견 대변
- IFLA 사무국은 네델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며, 회장은 회원국의 투표권 소지기관의 투표로 결정
  - 이사회 : 의장 1명, 이사 10명(투표로 매 2년마다 선출), 9명(전문부회에서 간접 선출)

### 2.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of Information and Congress)

- 2002년까지는 IFLA 총회로 불렸으나 2003년부터 WLIC로 명칭 변경
- 국제도서관연맹(IFLA) 사무국과 주최국 대회 개최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하며 세계 각국의 우수 현장 경험 및 주제발표,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전세계 도서관인의 정보교환의 장
- 매년 8월 개최국을 달리하는 대륙별 순회 형식으로 열리며, 200개 이상의 발표회에서 300편 이상의 도서관 업무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며 협력, 조사, 연구, 개발 등 IFLA 활동에 따른 성과물 공유의 장

### 3. 2018 WLIC 쿠알라룸푸르 대회 참가 개요

- 기간 : 2018.8.23.(목) ~ 9.1.(일), 8박 10일
- 개최지 :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KL컨벤션 센터
- 주제 :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 프로그램 세션 : 249개
- 참가등록방법
  - 각 국가별로 IFLA 회원기관에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신청
  - 온라인 등록 신청 완료 후 참가등록자의 이메일로 사전등록 용지 발송
  - 현지 대회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를 통해 사전등록용지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참가등록증 발급
  - 등록대에 참가등록증 제시 후 참가증 및 대회프로그램 자료집, 명찰 등 제공

		
사전등록	자료집, 참가등록증,	참가등록 안내데스크

#### 4. 말레이시아 개황1)

국명	-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of Malaysia)
지리	-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약 13km <sup>2</sup> )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약 20만km <sup>2</sup> )로 구성
면적	- 330,290km <sup>2</sup> (한국의 3.3배/ 한반도의 1.5배)
기후	-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기온은 27℃, 연평균 강수량 2,410mm임. - 말레이반도의 동해안에서는 북동 몬순기(10월~2월)에 상당한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음
수도	-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인구	- 32,042,458명 (2018 추계)
주요도시	-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 이뽀, 말라카
민족	- 말레이계(60%), 중국계(25%), 인도계(7%), 기타(8%)
종교	- 이슬람교(62%, 국교), 불교(21%), 기독교(9%), 힌두교(6%), 기타(2%)
언어	- 말레이어(Bahasa Malaysia, 공용어), 영어(상용어), 중국어 - 약 140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말레이시아 반도 40개, 사바 54개, 사라왁 46개)
통화	- 링깃(Ringgit Malaysia)(RM 혹은 MYR로 표시) - 1링깃=약 270.51원, 1US\$= 약 4.14링깃 (2018년 9월)
건국일 (독립일)	-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형태	- 연방 입헌군주제(Federated constitutional monarchy) · 3개 연방직할지, 서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11개주 및 동말레이시아 2개주 등 13개주로 구성 * 연방직할지 : 쿠알라룸푸르('74년 설정), 라부안('84년 설정), 푸트라자야('01년 설정) * 지방정부가 국방,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상당한 실권 행사 · 말레이계 9개 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 4개주(페낭, 말라카, 사바, 사라왁)에는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 존재
국가원수	- Sultan Muhammad V(15대 국왕, '16.12.13. 취임) · 말레이계 9개주 술탄이 5년마다 순환하며 국왕 역할 수행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수립 : 1960년 2월 23일 수교 - 주요협정체결 : 무역협정('62), 문화협정('65), 항공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약('83), 사증면제협정('83), 과학기술협력협정('86), 해운협정('88),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9), 형사사법공조조약('13), 범죄인인도조약('15)

1) 자료원 :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Naver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308&mobile&cid=43752&categoryId=43753>, 2018.9.15.검색), kotra(<http://www.kotra.or.kr/kh/main/KH-MUI010M.html>, 2018.9.15.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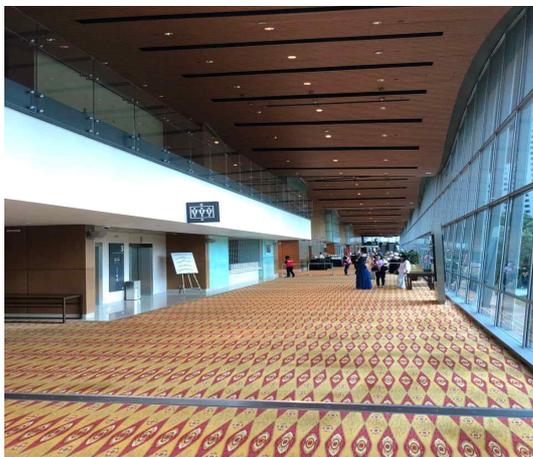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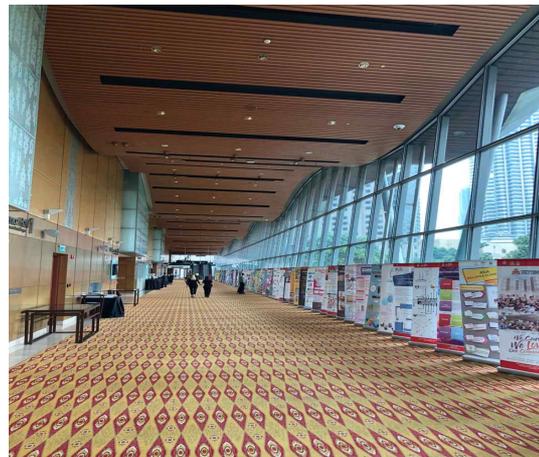
## 5. 대회장 개요 (말레이시아 KL컨벤션 센터)

### ○ 컨벤션센터 입지

-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신시가지에 위치
- 주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층건물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쇼핑센터, 공원 등이 위치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보유
- 주변에 셰라톤호텔, 힐튼호텔 등 많은 특급호텔들이 몰려 있음
-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곳에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위치

### ○ 컨벤션센터 시설규모

- 12,310제곱미터에 달하는 전시홀
- 3,000명규모 수용의 Plenary Hall
- 470명 수용규모의 Plenary 극장
- 2,000명 수용규모의 Grand Ballroom
- 1,800명 수용규모의 컨퍼런스 홀
- 50명에서 256명 수용규모의 미팅룸 23개
- 무선 인터넷 등 최신 통신시설 보유



### III 주요 세션 내용

#### 1. Session 114.

Sanctuaries in the city : the public library as a safe space - Metropolitan Libraries =  
도시의 보호시설 :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 메트로폴리탄도서관

##### 1) 도서관은 안전하고 중립적인 공간이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때! /

레오네 아리엘 데르, 호주 멜버른도서관

연구와 학습을 위한 조용한 도서관은 공공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역주민 누구나 도서관을 방문하여 인터넷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공공도서관의 변화는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자들에겐 당황스러운 현상이다.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찾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소통하고 연결하는 장소이며, 도시 피난처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멜버른도서관 이용자들의 설문결과 도서관을 •인터넷 무료 접속, •기술사용 지원, •스토리 타임 세션과 같은 초기 읽고 쓰는 능력 지원, •수집에 대한 액세스, •안전한 방문 장소, •연구 장소, •커뮤니티의 일부를 느끼고 사회적 통합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이므로 직원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이다.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도서관사서는 유아와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 및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화장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이용되고 있다. 도심 중심가에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주민 누구나 머무르면서 조용히 독서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무료 접속 등 정보 및 자료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인 자료 수집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시민들의 정보와 지식의 원천이 되고 다양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자료와 다양한 공간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심의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는 도서관 홍보와 주민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사서는 모든 계층의 이용자에게 적극적이고 중립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의 정보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 공공도서관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 된 것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서관 직원들의 노력에 있을 것이다.

##### 2) 공공도서관과 개인 공간: 토론토에서 정보접근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집 없는 피짜 청년 / 벤자민 월스, 캐나다

공공도서관은 지역 중심지에 노숙자와 성소수자 등도 차별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들에게 은신처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대도시의 공공 도서관은 노숙 청소년들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 공간설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도서관 직원이 외향적인 모습과 이용자 정보로 그들이 LGBT(성소수자)임을 구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소수자 일지라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공공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노숙 문제가 주요 문제이다(유네스코, 2014년). LGBT와 노숙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이다. 노숙자와 LGBT청소년들은 공공연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공격을 받는다. 이에 그들은 그들만의 안전한 공간을 찾고 있다. 그들이 찾은 공간은 24시간 커피숍(하이브리드 정보 공간) 또는 토론토 EatonCentre에 있는 애플 스토어였다. 공공도서관 역시 그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공공도서관 공간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 개방된 곳으로 노숙자와 성소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젊은이들이 애플 스토어에서 적극적인 IT소비자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을 성정체성과 거주지, 인종 등으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거나 각 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인류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비-공공 도서관 공간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잡지를 읽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다. 토론토의 일반이용자들은 노숙자와 LGBT청소년들이 공공도서관에 머무는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서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노숙자와 LGBT청소년들도 일반이용자들과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숙자 LGBTQ 젊은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길거리 경제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장소에서 더위를 식히고 공공도서관이 이 작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안전하고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트레시 엔젤 레스키, 미국 위스콘

공공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다. 도서관 건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리든 공립 중앙도서관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스콘신의 매디슨은 세계 최고의 연구 대학들 중 하나의 본거지이며, 강력한 지역 경제 때문에 미국에서 살기 좋은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매디슨도 주택과 자원부족으로 노숙이 증가하고 있다.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도서관 편의 시설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린이이용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 재건축을 시도하면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환영하는 디자인이 되도록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였다. 내부에 다양한 만남의 공간, 가족들의 위한 공간, 편안하고 안락한 좌석 등을 배치하여 시민사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숙자들도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차별 없이 출입이 가능하므로 일반인과 노숙자들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하고 설계하였다. 매디슨 공공도서관 재건축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활발해 지면서 밀폐된

공간의 위치, 직원 구역과 서비스 지점의 배치, 수집을 위한 공간, 그리고 화장실의 구성 및 위치를 추가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도서관 내부 공간 접근이 쉽도록 하였고, 어린이와



가족,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 통로, 밝은 조명,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디자인을 하였다. 노숙자와 일반이용자가 함께 이용하는 다중 화장실은 안전과 보안이 가장 우선시 된다. 화장실의 보안강화, 아동용 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부적절한 화장실 이용을 줄이고 프라이버시를 지켜 줄 수 있는 곳으로 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재건축한 도서관

은 건물이 총 25,000제곱 피트(약 2,323 m)로 확장되었고 열람좌석 또한 500석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용자들의 다양한 주제 활동에 맞는 공간과 좌석을 건물 전체에 배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넓은 테이블은 개인소지품이 이웃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다. 소지품을 보관 할 수 있는 사물함을 증가하면서 사물함에 방치된 개인소지품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되었다.

변화된 매디슨 공립 도서관 중앙 도서관은 2013년 가을에 문을 열어 지역 사회의 환호를 받았다. 많은 시민들이 철거되기를 원했던 건물이 재건축을 통해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도서관의 개장 후 첫 12개월 동안, 방문자 수는 252%증가했고, 체크아웃은 101%증가했으며, 15개의 결혼식은 예약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버블러 프로그램의 중심지는, 제작자들의 활동과 미술 전시회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 도서관의 확장된 프로그램 공간은 강의와 시 북-일, 드롭-인 만들기,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사회와 도서관 행사에 사용된다. 아동용 스위트 룸은 이제 가족과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으며, 프로그램과 회의실 사용은 보수 전과 비교하여 거의 1,500%증가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디슨 공립 도서관은 새로 구상된 중앙 도서관 건물에 의해 창출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추진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문을 연 이후로, 도서관은 현장 사례 관리, 홍보 및 소개 서비스를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확장해 왔다.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사회 복지사는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등록을 돕고, 시험, 치료, 의뢰, 사례 관리를 하는 노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비영리 단체인 Porchlight의 영구 현장 사례 관리자는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피난처, 주거 및 식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부모 교육, 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도서관 사물함은 도움이 필요한 노숙가족들을 위해 기저귀와 옷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 일정을 정리하여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매디슨 공립 중앙 도서관 변화를 위한 디자인 과정은 논쟁이 되었지만 다양한 공동체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었다. 모든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각 설계 과정을 결정하였다.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도서관 건축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봉사 하는 건물로 탄생하였다.

**4) 안전한 장소로서의 공공 도서관: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공원 도서관의 원칙과 경험 /아나 리기아 실바 메데이로스, 알리 곤살베스 다 시우바, 질다 올린토, 브라질 자네이루**

지역민에게 공공도서관은 민족, 성별, 나이 등으로 도서관 이용을 차별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과 지역 사회 그룹 간의 상호 작용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소수집단 특히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사회 환경에 놓여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서관 정책은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 공원 도서관**

리우 데 자네이루 공원 도서관의 구상과 시행은 빈민 지역에서의 연방정부의 주요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년 콜롬비아 기술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와 메델린의 성공적인 경험은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문화부 장관을 통해 4개의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니테로이와 리오데자네이루에 전통적인 도서관이 복원되었고



망고와 로신하에 새로운 공원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두 개의 전통도서관은 도시 인접지역에 위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파크 스테이트 도서관**은 주립 도서관을 지역 공원 도서관의 중앙 기관으로 리모델링했다. 2014년에 개장하여,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차,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주제의 책을 포함해 20만점의 도서와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니테로이 공원 도서관**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국립 도서관과 비슷하게 리모델링되었다. 두개의 다른 공원 도서관은 가난하고 폭력적인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로신하에 있는 공원 도서관**은 가난하고 폭력적인 지역 사회에서 뛰어난 공공장소가 되었다. 2009년에 설립된 '시민 센터'라고 불리는 기관들 중 하나로 수상 공원, 청소년을 위한 참조 센터, 법률지원센터, 소득창출센터, 보건센터, 중학교 여성들의 참석을 위한 센터가 있다.

**망고 도서관**은 다양한 책과 멀티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고, 무료로 집으로 책을 빌려 주고 있다. 어린이실, 컴퓨터실, 강좌실, 멀티미디어실 등의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문화적 활동뿐만 아니라 언어 개발과 글쓰기 교육을 하였다.

## 망고 도서관 체험 학습

2012년에는 만귀호스 공원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 정량적 접근법으로 연구하였다. 공원도서관 내 커뮤니티 룸은 호화로운 가구와 컴퓨터를 배치하여 지역 사회에 도서관을 홍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폭력이 빈번한 빈민가에서 안전하고 흥미로운 장소로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도서관을 선호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한 물리적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의 가난하고 폭력적인 이웃 마을에 위치한 보고타, 메델린,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채택된 공원 도서관 모델은 그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예이다. 지역공동체와 공공도서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폭력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만귀호스 공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는 지역 사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 지역 문화의 장려 등의 양질의 공간과 서비스를 제시했다. 공공 도서관이 공동체의 '안전한 장소'라는 느낌과 소속감을 만들어 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험은 경제 여건 변화로 중단되었고, 2018년에야 완전한 이익을 위한 새로운 노력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이민자와 난민들의 통합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도서관 : 프랑스의 아이디어 상자에서 정보와 교육에 대한 접근/ Jeremy Lachal(Bibliothèques Sans Frontières, 프랑스)

공공도서관 설립이 어려운 난민촌 같은 곳에 20분 이내로 쉽게 설치 할 수 있는 휴대용 미디어 센터를 이용하여 정보 검색과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휴대용 미디어 박스는 난민들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난민 어린이들의 글자공부와 언어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몇 개의 미디어 박스를 이용한 작은 도서관은 난민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있으며, 놀이 공간과 학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난민지역 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휴대용 미디어 센터를 응용하여 만든 작은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서는 상담과 소통을 통해 난민들이 도서관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휴대용 미디어 박스는 이중언어교육, 게임,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여 함께 어울려 공동체를 이뤄 새로운 삶을 일궈 갈 수 있도록 프랑스 정보와 도서관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6) 노숙자들을 위한 도서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보호소와 홈리스 학교 사례 연구 /다나르시 트리 라스티, 누르파라히다 바드루삼 공저자

도시 공동체에서는 개발과 지체의 모순된 상황이 있다. 지체현상은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빈민가에서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은 무척 낮을 수밖에 없다. 빈민과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자카르타 지방정부

가 공공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 노숙자는 대체로 거리에 사는 사람과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주거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 된다.
-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매년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를 감소하고 있다.
- 사회복지센터(노숙자 보호소)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 1997년 보호소 어린이들을 위해 시작된 책 제공 사업은 2011년에 이르러 책을 카트에 담아 고정된 장소에 보관되었다.
- 역에서 밤을 보내는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책을 제공하는 목표를 실현 시키고자 기부를 받고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다.
- 도서관을 노숙자들이 휴식과 피난처로 이용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숙자 수용시설과 학교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를 인터뷰했으며, 녹음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작은 도서관은 책과 학교 교구로 구성되었으며, 한명의 선생님의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서는 기증도서로 구성되어 최신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령에 맞는 다양한 책을 배치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가제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최신의 책이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은 공공의 피난처로 노숙자와 부랑자 누구나 모두를 환영하는 공간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교육, 교통 센터 설립, KLS에 대한 지원, 크라시 패드, NGO 활동 지원, 노숙자를 위한 학교 제공과 11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위해 노숙자를 위한 지도상담학교를 설립하여 유치원부터 상급 중등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육 규정에 따라 거리의 아이들로 인정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되며,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 2020년까지 새로운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거리의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서관은 보편적인 공공 서비스 장소로서 그것의 사용자 공동체들 간의 신뢰를 고취시킨다. 지역민에게 도서관 자체가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고, 공동체는 이 공간을 신뢰하고 규범을 개발하는 법을 배운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NGO)가 도서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숙자 교통 센터와 대피소에 설립된 도서관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삶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숙자들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교육을 받아 노숙자 스스로 도서관을 더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Session 128

Expand Your Reach in a digital World : How to be in A 1000 Places All the Time - Management and marketing

디지털 세상에서 너의 능력을 확장시켜라 : 항상 1000곳에 있는 방법 - 경영과 마케팅

### 1) Keynote : Expand Your Reach in a digital World, Ana Brzezinska

키노트 : 디지털 세상에서 너의 능력을 확장시켜라

\* Ana Brzezinska, Independent filmmaker, Poland



#### □ 개요

- 우리는 독자의 급변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 그들에게 매력적인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캠페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 내용

- 이용자의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해서 어려움
- 헐리웃 배우인 조지 클루니는 같은 유명인을 섭외해서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 독자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가장 큰 장애물은 현대 독자들의 단편 화임
- 장기 목표: 잠재 고객의 창의적인 계발(독립적으로 생각하게 유도) → 사회 발전(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음) → 삶 품질 향상(삶의 질을 좋게 만들음) → 경제적 가치(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 창조)
- 도구 및 방법 :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

### 2) Beyond Social Media : A Current View of the Digital Marketing Landscape in Libraries

소셜 미디어를 넘어서 : 도서관 디지털 마케팅 최근 동향

\* Hong Cheng, University of Cincinnati, United States



□ 개요

- 도서관은 21세기에 보다 현대적인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
- 소셜 미디어는 대부분의 도서관 마케팅 전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내용

- 많은 도서관이 전략적 디지털 마케팅을 개발하여 비디오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검색엔진 최적화(SEO), 모바일 마케팅,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홍보할 수 있음
- 검색, 페이스북, 구글, 야후 등 검색 엔진에서 최대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추가적인 디지털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참여가 중요
-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검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온라인 검색 엔진의 최적화,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
- e-mail 마케팅의 경우 금전적 부담이 없고 다양한 이용 계층에게 홍보가능, video 마케팅의 경우 비디오로 찍어 UCC같은 미디어에 올려 관중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
- PDF, 트위터 등 content marketing 의 경우 홍보효과는 매우 강력함  
미국 설문조사에서 트위터 마케팅으로 많은 반응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음
- Websites, Social media, SEO, Email, Videos, Mobile, Content marketing 은 가장 효과적임. 미래의 도서관은 디지털 마케팅으로 이용자의 삶에 더 깊이 파고들 것이며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침

3) Use the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world - transformed library services, resource reallocation and developed work structure

디지털 세상의 기회 활용 : 도서관 서비스 변화, 자원 재분배와 작업 구조 개발

\* Catharina Isberg, Helsingborg City Library, Sweden



□ 개요

- 세계화, 도시화, 디지털화는 우리 주변의 변화에 핵심 요소
- 디지털화의 중심이 도서관 서비스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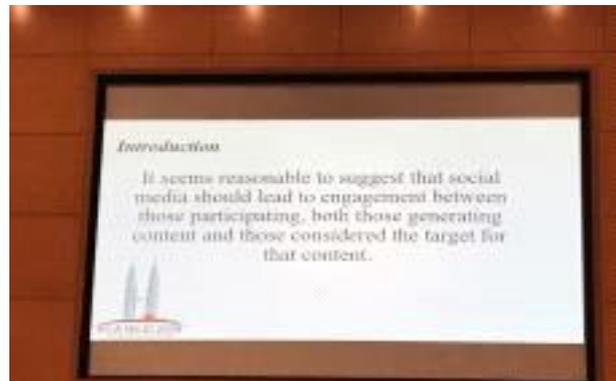
- Helsingborg city는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음
- 지역 및 변화된 사회구조로 도서관은 그 변화에 맞춰 노력중임
- 디지털화와 디지털 격차, 독해력 감소, 민주주의 힘과 표현의 자유, 미디어 환경 및 소비의 변화, 이민자, 1960년대와 70년대 도시의 도서관 지도, 스웨덴과 헬싱보리의 재정상황 등 이러한 어려움은 전체 도서관 사업에 영향을 미침
-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도서관 활동의 핵심임

- 정보환경이 변화하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생겨남에 따라 업무를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디지털 사업은 모두를 위한 정보접근을 보장함
- 스웨덴 정부는 3년간 공공도서관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
- 현재와 미래의 주민 모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 4) How social is your media? Managing social media marketing in academic libraries

당신의 미디어는 얼마나 사회적인가? 학술도서관에서의 소셜 미디어 마케팅 관리

\* Kingsley Ihejirika, School of information Management,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New Zealand



##### □ 개요

- 학술 도서관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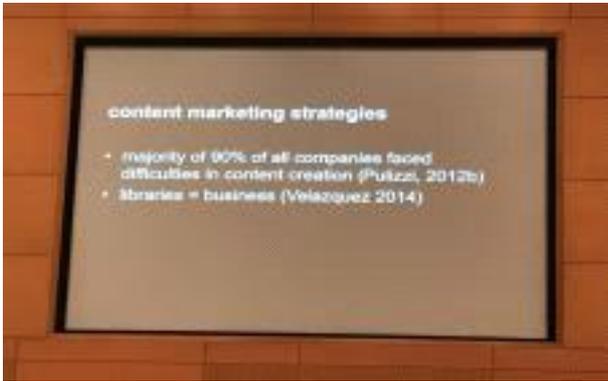
##### □ 내용

- 마케팅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편적임
- social media라는 용어는 “media”와 ”social”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됨. 소셜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셜 미디어를 대부분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동의어로 인식하는데 소셜 미디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임
- 도서관은 소셜 미디어의 대화 잠재력을 활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음
- 학술 도서관은 소셜 미디어를 매우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자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불분명함
- 정보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도서관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소셜 미디어는 사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서관 관리자는 경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5) Content Marketing Strategies via Instagram for Indonesian Libraries

인도네시아 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을 통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

\* Widiatmoko Aya Putranto, Archival Science Study Program, Universitas Gadjah Mada, Ashry Noviana Fajry, Ministry of Trade, Indonesia



□ 개요

-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디지털 마케팅 세계에서 새로운 기술임
-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목적

□ 내용

- 도서관들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소셜 미디어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 2010년에 출시된 Instagram은 현재 가장 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이며 수많은 조직들이 Instagram을 마케팅 도구로 선택했음. 2018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도구로 선정되었고 두 번째로는 트위터였음
- 인도네시아는 Instagram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그 추세를 잘 알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여러 도서관의 57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61.4%가 Instagram 공식 도서관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함. Instagram을 통해 기관 및 프로그램 참여,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함
- Instagram 작성 시 주제가 확실히 선정되어 있어야 하며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비주얼, 디자인, 일관성과 최신성, 콘텐츠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함
- Instagram의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대에 온라인의 존재는 매일 필요한 것이며 가치가 있음

**6) IFLA BibLibre International Marketing Award 2018 : First Place Winner : “2017 Youth Fines Amnesty”**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상 2018 : 1위 수상자 : “2017 청소년 벌금 사면”

\* Johannes Neuer, New York Public Library, United States



□ 내용

- 뉴욕공공도서관 주최로 청소년을 위한 금연 캠페인 실시
- 미국 정부에서 자원을 후원함. 후원 유지를 위해 캠페인 실시
- “Libraries are for everyone” 공공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림
- 캠페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 하는지가 중요
- 성공적인 환경 조성
- 캠페인의 성공으로 뉴욕공공도서관은 2019년 767만 달러 국가재정을 확보함

7) IFLA BibLibre International Marketing Award 2018 : Second Place Winner :  
“keeping up with the Librarians”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상 2018 : 2위 수상자 : “사서와 함께하기”

\* Bonnie Mager, Invercargill Libraries and Archives, New Zealand



□ 내용

- 마케팅의 성공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임
- 도서관과 사회,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야 함
- 마케팅 전략은 트위터,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비디오를 찍어 공유
- 재미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사서들이 직접 찍어서 올려 온라인 뉴스에서도 보도됨
- 사서들이 직접 자신들의 생각을 올리고 다른 사서들과 같이 공유
- 사서는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 IFLA BibLibre International Marketing Award 2018 : Third Place Winner :  
“Greeting from Zagreb”

IFLA BibLibre 국제 마케팅 상 2018 : 3위 수상자 : “자그레브로부터의 인사”

\* Dragana Koljenik,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in Zagreb, Croatia



□ 내용

- 크로아티아에 오는 현지 여행객들을 대상
- 예전에 사용한 엽서를 디지털화해서 추억을 재생산함  
이런 새로운 방법을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
- 디지털화 된 엽서는 어플에서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보내거나 서로 공유 가능
- 이러한 서비스는 여행객들에게 관광지, 명소를 제공하는 어플로 간주되고 있음
- 도서관은 이를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여 현대 시대에 맞는 마케팅임이 증명됨
- 이러한 결과는 모두 같이 협력하고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

### 3. Session 166

#### 가. Empowering famers' community through digital media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 India : 인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농민 공동체의 힘

발표자: Sunil Gorla, Sanjay K. Bihani, K.L. Mahawar



#### 1) 인도 개요

- 영토 : 29개주와 7개의 Union territories
- 문맹율 : 27%
- 언어 : 힌두어, 영어와 22개의 주요 언어 사용
-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
-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13억 4천만명의 인구
  - 2030년에는 15억명, 2050년에는 16억 6천만명 예상
- 2001년에서 2011년사이에 인도의 도시인구는 31.8% 증가, 시골은 12.8% 증가

#### 2) 인도에서의 농업의 위치

- 2011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총 인구의 68.8%, 노동력 인구의 72.4%가 시골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 GOP의 17% 차지

- 우유, 콩, 차, 황마(麻)의 세계 최대 생산자
- 세계 최대의 인도의 농업 연구 교육시스템(INARES)
- ICAR은 농업의 최고 집합체
  - 101개의 ICAR 연구소들
  - 64개의 SAU, 3개의 CAU, 4개의 DU
  - 690개의 농업과학센터
- 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 Education (DARE)와 인도농업연구위원회 (ICAR)는 2022년까지 농민소득을 2배로 하는 정책을 추진.
- 2017-18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중에 1,487억 달러가 농업부문과 농민의 복지를 위해 편성되었다.
-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고품질의 보다 많은 과일, 채소, 우유, 고기, 달걀 등이 필요함

### 3) 도시농업

- 타운, 시, 대도시 주변
- 농업생산품
- 원예농업, 양식업, 가축업
- 빈곤 탈출, 식량안보
- 케이스 스터디
- 뭄바이, 델리, 캘커타 등

### 4) 인도에서의 농업 발전 활동

- 농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에 노력
  - 민간부문과 함께 인도 정부는 예측가능한 농업을 위해 인터넷과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농업 부문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음
- 농부는 항상 제때 필요한 정보를 원함
- 농업 발전 활동들
  - 690개의 농업과학센터,
  - 44개의 ATIC (Agricultural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s)
  - 250개의 ATMA (Agriculture Technology Management Agency)
  - AUs와 101개의 ICAR(인도 농업연구위원회) 연구소들
  - 농업발전 주제전문가들 (AES)
- 정부 전략
  - 빈곤 탈출, 농업 발전
  - 농민소득 2배 증대
  - 70% 농업인구의 강화
- INARES에 의해 발간되는 농업발전을 위한 문헌들은 인쇄,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의 형태를 보인다.
  - 인도농업(영어-월간), 인도 원예(영어-계간), Farming(힌두어-월간), 과일-화훼(힌두어-계간) 등
- 인도의 대부분의 마을들은 전화와 핸드폰을 통하여 연결되고, 또한 수 백만개의 마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다.

- 인도 농부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라디오는 SAU에 의해 연결되었다.
- ICAR(인도 농업연구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광범위한 연구에 의하면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이어 핸드폰은 가장 인기있는 ICT 기기로 나타났다.
- ICT 인프라도 시골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더 발전되었으며, 디지털 분야의 농업발전 서비스도 도시지역이 더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인도 농부와 디지털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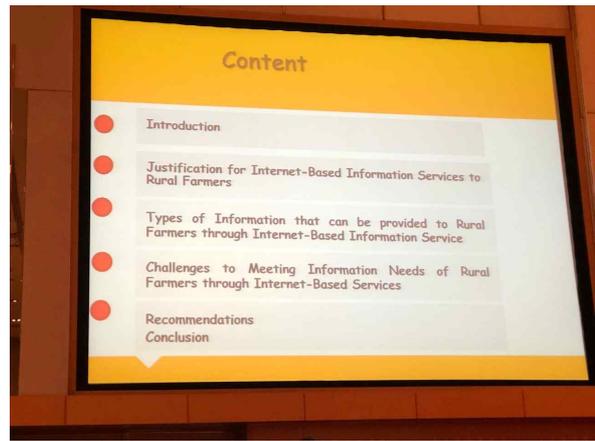
- 전통적으로 인도의 농부는 동료 농부들에게 대부분의 정보를 의존해 왔음.
- 인도에는 2017년 10월 현재 총 11억 6,247만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다. 이중 도시 지역은 6억 6,494만명, 시골지역은 4억 9,753만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있다.
- 디지털 기술은 농부들에게 작황, 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씨앗 정보, 작물에 대한 병충해 등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와 관련하여 인도 정부는 오픈 데이터, 토양 건강 카드, mKisan (mFarmer), 농부포털, Agrimarket app 등을 농부들을 위해 만들었다.
- 인도정부는 농부들에게 적절한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KisanSuvidh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오늘과 5일 후의 날씨 정보와, 시장 가격, 작물 보호, 기타 농업관련 자문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 ICRIAT에 의하면 농부들에게 가장 훌륭한 정보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이다. 이를 위해 ICRIAT는 농업 관련 자문정보에 기반한 음성 메시지 시스템인 **KrishiVani**를 개발했다.
- 휴대폰을 위한 전용 SIM카드를 장착한 이 서비스는 일주일에 35개의 음성 메시지를 지역어언어(방언)로 무료로 보낸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날씨, 시장, 작물정보, 정부 정책, 가축 등에 관한 것들이다.
- 인도 농부들을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
  - 농부포털
  - 개발 모니터링시스템 - <http://farmer.gov.in/>
  - 주립 농업발전과 교육연구소 - <http://extentionreforms.dacnet.nic.in/>
  - Agropedia - <http://agropedia.iitk.ac.in/>
  - 쌀 지식관리 포털 - <http://rkmp.co.in> 등

## 6) 결 론

- 인도 정부는 농부들이 ICT에 친숙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10만개의 마을들이 광통신망으로 연결됨
- 2019년에 「디지털 인도」는 25만개의 마을들이 브로드밴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발전에서 디지털미디어의 역할
  - 농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 빈곤과 가난의 종식
  - 모든 농부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 인도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SDGs) 달성

## 나. Challenges of meeting Information Needs of Rural Farmers through Internet-based services : experien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발표자: Francisca Chinyeaka MBAGWU (나이지리아)  
 Oyemike Victor BENSON (나이지리아)  
 Charis O, ONUOHA (나이지리아)



농업은 인류의 시작 이래로 인간생활의 한 부분이였으며, 농업정보에 대한 욕구는 농업 그 자체 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 시골 농부들에게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 신뢰할만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 정보는 소규모 경작농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 정보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시골농부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 마케팅 정보
    - 시골 농부들에게는 시장과 그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농산물을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농기계를 조달할 수 있는지의 정보가 필요함
  - 가격정보
  - 해충에 대한 통제정보
  - 비료의 판매시점에 관한 정보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골지역의 농부들에게는 비료만큼이나 비료의 판매시점이 중요하다.
  - 신용기관에 대한 정보 등
    - 시골농부들에게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
- 인터넷에 기반한 시골 농부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직면한 도전 과제

- ICT 인프라의 부족
- 농업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시골농부들 일부의 낮은 관심도
- 농업정보 필요에 대한 시골농부들의 부족한 인식
- ICT 해석능력의 부족
- 시골지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부재
- 도서관의 농업정보 제공의 부재

○ 해결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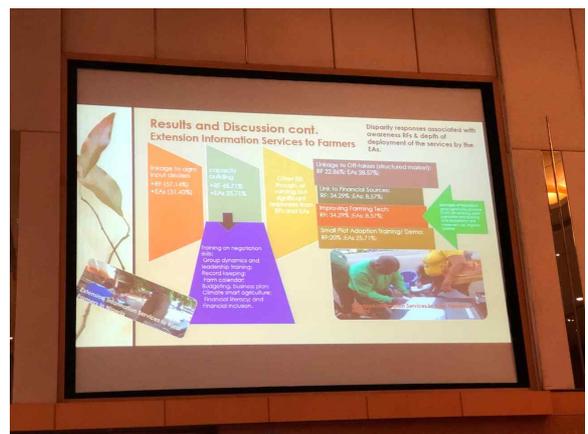
- 인터넷 연결기반의 강화
- 온라인 농부토론 포럼 신설
- 시골농부들을 위한 ICT와 농업 정보 리터러시 능력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의 재가공
- 온라인 농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결론

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발전을 견인하는데에 중요한 요소임. 인터넷에 기반한 도구가 시골농부들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농업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폭넓게 활용되어야 함.

다. Improving Rural Farmers'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ICT based extension information services

발표자: Chizoba Pamela Anunobi (나이지리아)  
Chinwe Veronica Anunobi (나이지리아)



○ 개요

- 나이지리아의 시골농부 수 백만명은 농업과 식량 공급 사슬의 기반이다.
-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생산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낮은 농업 생산성이라는 해악으로 나타남
- 시골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현대적인 농업생산 방식의 채택과 교육 필요함
- ICT 기반의 정보서비스는 농업 정보 교환과 실용적인 정보의 전달을 위해 필요함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 사용
- Anambra주의 4개 농업지역에서 3개의 개발기관(extention agents)에 의해 설문지를 배포 하였으며, 70명의 시골농부들에게 인터뷰 세션이 시행되었다.

○ 농부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 남성 62.9%, 여성 37.1%로 구성
- 나이지리아 동부지역은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남성이었으나, 경작은 여성이 하는 것으로 밝혀짐
- 농부 중에서 21세에서 40세 인구는 27.1%, 41세에서 60세 인구는 34.3%, 61세 이상은 20%, 20세 미만은 18.6%로 나타남
- 농부들의 평균 연령은 50세로 나타남
- 농부들이 학교교육을 이수한 비율을 보면 각각 무학은 20%, 1년에서 6년은 27.1%, 7년에서 12년은 35.7%, 13년이상은 17.1%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11년의 학교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확장된 서비스에 기반한 기술의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발전된 정보서비스에 기반한 ICT의 이익에 응답한 농부와 개발기관의 분포

확장되어 제공되는 ICT 이점	빈도	비율
<b>&lt;농 부&gt;</b>		
- 생산성 증가	24	34.2
- 농업정보 접근성 증가	49	70.0
- 시장 점유율 증가	14	20.0
- 적합한 생산물 저장 방법의 제공	4	5.71
- 농업에 관한 정보의 증가	30	42.86
<b>&lt;개발기관&gt;</b>		
- 보다 광범위한 확산	41	58.57
- 정보공유의 용이	14	20.0
- 기상정보 예측에 도움	36	51.43
- 균형된 정보 제공	15	21.43
- 비용의 효율성	40	57.27

주) 복수 응답

○ 결 론

- 시골농부들에 대한 도전과제
  - 반복되는 전력공급(에너지) 부족 : 37.14%
  - 빈약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 22.8%
  - 고비용의 ICT 시설 : 37.14%
  - 대출시기의 불일치 : 32.86%
- 개발기관들에 대한 도전과제
  - 고비용의 스마트폰
  - 부족한 통신서비스 기반
  - 자금의 부족
  - 농부들의 ICT에 대한 문맹.

#### 4. Session 184

### Public Library of the Year Awards - Public Libraries, Metropolitan Libraries and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 올해의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 수도권, 도서관과 도서관 건물과 정비

#### 1) 2018 올해의 공공도서관 최종 후보 5곳 선정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WLIC 2018의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19개국의 35곳의 도서관들과 경쟁에서 최종 후보자로 5곳이 선정되었다. 최종 후보에 오른 다섯 곳의 도서관 발표가 있었다. 후보 도서관은, 미국의 오스틴 중앙도서관(Austin Central Library), 네덜란드의 스키투울 7(KopGroep Bibliotheken, School 7), 브라질의 빌라 로보스 파크 도서관(Villa-Lobos Park Library), 노르웨이의 비블리오 트윈(Deichman Biblio Toyen), 싱가포르의 템피니스 도서관(Tampines Reginal Library)이다.

상금은 미화5천불로, 상을 후원하고 있는 시스티메틱닷컴(systematic.com)에 따르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 평가 기준

- 주변 환경 및 지역문화와의 상호 작용: 건축물이 지역사회의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방법 또는 고려하는 방법, 도시 경관 및 주변 건물 및 열린 공간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도서관은 도시 상황에서 연결이나 움직임의 동인이 되는가? 도서관이 공동체를 위한 '거실(living room)'로 기능할 수 있는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가?
- 건축의 질 : 각 공간이 기능과 물류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포함한다. 건축 개념은 건물 내의 다른 규모로 어떻게 구현되고 설계되는가? 도서관 내의 개별 공간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

- 유연성: 공간 설계 및 구성 방법, 표면 및 공간 조합이 사용자 자신의 활동에 영감을 주는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과 시너지 효과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는 워크숍이나 무대를 위한 제작자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들이 사용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러한 공간을 쉽게 수정하고 다양한 기능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사용된 자원의 양을 줄이거나, 건설 과정에서 현지 자료를 사용하거나, 천연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이 지속 가능한 사고가 도서관에 통합된 방법을 포함한다.
- 학습 공간: 도서관이 교육에 다양한 진로를 제공하는 방법, 다양한 학습 상황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 다양한 요구, 연령 그룹에 호소하는 방법, 다양한 학습 형식, 특히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학습을 장려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학습 공간은 나머지 도서관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
- 디지털화: 모바일 통신 기술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서관 공간 내에서 디지털 통신 및 도서관 콘텐츠의 접근 가능성을 통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디지털화의 기초로 디자인, 미학과 상호 작용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건물 내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디지털화를 사용해 왔는가?

### 3) 후보지 5곳 소개 발표

#### ○네덜란드, 스쿨 7(KopGroep Bibliotheken, School 7)

스쿨7 도서관은 2016년에 문을 열었다. 이 도서관은 덴 헬더(Den Helder) 센터에 있는 백 년 된 학교 건물에 있고, 도서관이 들어오기 전에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주민들은 오래된 건물 철거에 반대했고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섰다.

도서관은 덴 헬더 센터의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인근의 지역 극장, 카페, 대학들과의 활발한 협력 작업으로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었다.

이 도서관은 도시의 거실(living room)로 소개되며, 월 평균 1만 명의 방문자가 찾아오는 아름다운 건물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스쿨 7의 관장인 재신타 크림프(Jacinta Krimp)는 “우리는 1905년에 건립된 건물을 새로운 도서관의 부분으로 재건시키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이벤트를 치루며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냈다. 오늘날 우리 도서관은 유명한 결혼식장이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고,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강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이 도서관의 필수적인 요소로 이 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스쿨 7 도서관이 21세기 도서관의 좋은 사례로,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협력활동과 건물의 위치, 레이아웃, 건축의 혁신적인 면을 극찬했다.

### ○ 노르웨이, 비블리오 트윈(Deichman Biblio Toyen)

10세 이하이거나 성인인 어른은 이용 불가로 오직 10세에서 15세 사이의 트윈세대 전용 도서관이다. 친구를 만나고, 탐구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성을 표현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배우고, 책을 읽는 트윈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다.

유럽의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도 도서관의 개념이 책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만나서 생각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공간이다. 여전히 책은 중요하지만 다른 미디어들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 고전적인 개념의 도서관은 소셜 공간(Social space)으로 전환되고 있다.

비블리오 트윈의 대표자는 다음의 말로 발표를 끝맺었다.

“우리는 매일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뛰어난 도서 선택을 도와주고, 영감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성취를 돕고 있다. 이것이 도서관의 목적이다. 새로운 것은 무섭기도 하다. 그것이 만드는 변화는 알 수 없다. 변화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여 이 새로운 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우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미래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매일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아이들의 미래에 변화를 주고 있다.”

### ○ 미국, 오스틴 중앙도서관(Austin Central Library)

2017년 10월 28일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198,000 평방피트 면적 규모에 총 5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총 6층 건물로, 옥상 나비 정원(living rooftop garden), 실내독서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1인실(bicycle corral), 대규모 실내와 야외 행사 공간, 선물가게, 아트 갤러리와, 카페 등을 갖추었다. 특히 “테크놀로지 애완 동물원(technology petting zoo)”은 방문자들이 3D프린터와 같은 다음 세대의 기기들을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임실, 워크샵, 강좌를 위해 사용되는 14개의 공유 학습 코워킹 공간과 자료실에는 584 좌석수를 자랑한다. 공공 PC와 맥컴퓨터 140대, 랩탑과 아이패드 등 대출용 전자기기 150대, 전자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50개의 대형 스크린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과 가구 부분에서 높은 유용성은 물론 빗물시스템과, 자체 에너지생산 시설과 같은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브라질, 빌라 로보스 파크 도서관(Villa-Lobos Park Library)

브라질의 공공도서관으로 2014년 12월에 상파울로 시 서쪽에 동일한 이름의 빌라 로보스 공원 안에 개관했다. 4,257 m<sup>2</sup> 면적 규모이다. 고전 작품, 외국과 국내 베스트셀러 및 신간 서적을 포함하여 3만9천점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강좌, 스토리텔링, 문학작품에 대한 토론을 제공한다. 빌라 로보스 파크 도서관은 독특한 공간이다. 게임룸, 장난감도서관, 등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공원을 내다볼 수 있는 데스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방문자들이 조용히 책을 읽을 공간이 있다.

도서 대여, 학습 공간과 같은 다른 도서관의 역할은 물론이지만 스토리텔링, 독서 명상, 강좌, 워크샵, 연극과 음악 공연,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등과 같은 전 세대의 관심 활동으로 매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독서, 레저, 학습과,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한다. 문학과 환경 이슈에 중점을 둔 장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도서, 잡지, 신문, 전자도서, 오디오북, 코믹, DVD들, CD들, 이외에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와 녹음 도서들을 갖추고 있다.

2014년 개관한 이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려는 목적으로 “living library”의 컨셉을 따르고 있다. 원래는 개방된 쓰레기 처리장(open garbage dump)이었는데 공간 재생의 노력으로 현재는 무료 접근과 독서가 가능한 다이내믹한 공공 도서관으로 전환되었다. 지역의 방문자들만이 아니라 쉬운 접근으로 시티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찾아온다. 테크놀로지와 전기 장비는 물론이고 장애인들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장서를 갖추었다. 빌라 로보스 파크 도서관은 깨끗하고 개방적인 환경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다양한 종류 활동들이 실행 가능한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활발한 도서관 이미지를 강조했다.

○ 싱가포르, 템피니스 도서관(Tampines Reginal Library)

싱가폴에서 가장 큰규모의 공공도서관이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총 5개층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8월 5일에 재개관했다. 이전 도서관이 6,208평방미터에서 현재 12,600평방미터로 확장하여 공간도 70% 증가했고, 현재 좌석은 886석이다. 공식 4개의 언어로 된 문학 자료, 1만2천권의 싱가포르 지역 작가들의 작품, DVD, 잡지, 그리고 CD 등 4십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템피니스 도서관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위한 장비들을 갖춘 “high-tech library”이다.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두 대의 장서회수 로봇을 설치했다. 한 대가 약 1백권의 장서가 담기면 스스로 사무실까지 운반한다. 템피니스 도서관은 싱가포르에서 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도서관이다.

총 5개 층 구조로 쿠킹 스튜디오, 신체단련을 위한 7백미터 거리의 러닝 트랙(running track), 건강 서가 부분에 놓인 엑소사이즈 바이크( exercise bikes) 등등 이전의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템피니스 허브의 축구 경기장을 바라보며 사이클을 타거나 책을 읽을 수 있다. 싱가포르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가 People’s Association Association Culinary Studio와의 협력으로 요리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책 읽기에 지치면 바로 인근의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Tampines Rovers’(전 S리그 챔피언) 축구 경기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혼자 책을 읽거나, 단체로 토론을 하거나, 조용한 학습 공간을 원하는 이들에게도,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스토리텔링도 제공된다.



#### 4) 2018 올해의 공공도서관 발표



- 네덜란드 덴 헬더(Den Helder)에 위치하며 KopGroep 도서관기관 소속의 스쿨7 도서관(Bibliotheek School 7)이 2018 올해의 도서관(the Public Library of the Year 2018)으로 선정되었다. '도서관 목적으로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부지 내에 도서관이 설립되거나 새롭게 설치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35개국의 19개 도서관과 경쟁 끝에 1위를 수상했다.
- 2014년에는 호주의 크레이기번 도서관(Craigieburn Library, Australia), 2015년에는 스웨덴의 키스타공공도서관(Kista Public Library, Sweden), 2016년에는 덴마크의 도크 1(Dokk1, Denmark)이 각각 수상한 바 있다.

## IV 포스트 세션

도서관의 실제 업무 경험이나 기획단계의 사업을 포스터를 통해 전 세계 사서들에게 홍보 및 공유

### 1. 스웨덴 공공도서관

New ways to attract to reading in times of decline in reading and lending

독서와 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에 독서에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법들

#### 1) 독서 즐기기- 새로 시작하는 부모를 위한 독서 동아리

스웨덴 Hassleholm 공공도서관은 난민을 대상으로 한 랭귀지 카페를 서비스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삽화가 있는 그림책을 모으고 있으며, 어린이 문학을 사용하여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스웨덴어를 쉽게 배우도록 한다. 사서들은 SFI(Swedish For Immigrants)학교에 아랍계 학생과 함께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으며, 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책을 읽고 다음 모임에서 책을 다시 토론한다. 동화책을 통하여 독서력과 언어(스웨덴어, 아랍어))를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2) 맹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북클럽 운영

SRF(Synskadades riksförbund)라고 불리는 맹인 및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약하여 한 달에 한 번 6~7명씩 그룹을 만들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도서관은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대출자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항상 무료이다. 책은 CD, USB 또는 메모리 카드로 제공되며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스마트 폰, 태블릿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 3) Tech-telling : Vaggeryd 공공도서관

독서진흥을 위해 도서관의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를 ‘테크텔링(Tech-telling)’이라고도 한다. ‘Bluots’이라는 작고 간단한 로봇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탐구하며 아이들은 이야기를 만든다. 또한 이렇게 프로그래밍, 디자인, CAD, 레이저 커팅 및 3D 인쇄 지식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다양한 자료로 학습 할 수 있다. 그래서 촬영, 공동작업,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적어낸다.

#### 4) The Mouse Library

실제 살아있는 쥐가 전시되어 있고, 미니어처에서 쥐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유도한다. 또한 ‘쥐 도서관’을 위한 instagram 계정을 만들었으며 책도 만들고 쥐를 위한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 2. 일본 공공도서관

Cancer information :A survey of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services offered by public libraries in Japan (암 정보 : 일본 공공도서관의 건강 및 의료 정보 서비스 실태 조사)

일본은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도서관이 어떤 서적을 제공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100%가 의학과 관련된 서적이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전문 의학서적을 좀 더 제공 해주면 좋겠고, 일본의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 지식과 관련된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에서는 의학관련 서적 확충과 자궁암, 간검사 등 건강관련 정보를 만화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고, 의과대학과 연계한 의학관련 참고도서 목록 제공, 메디칼 에세이(간병기)코너도 있는데 환자가 느낀 소감을 책으로 제작한 것을 서가에 비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커뮤니티는 다양하므로 도서관은 현재 사용자의 요구에 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평생교육과 비즈니스 지원은 공공도서관에 새로운 과제이며, 다른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강 및 의료 정보 서비스 및 법률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 공공도서관



일본 공공도서관

### 3. 'Kids & Teens & Libraries - together on a cultural journey' / Estonia '어린이, 청소년, 사서가 함께 하는 문화여행' / 에스토니아

<p>1. 에스토니아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 130만</li> <li>- 인터넷 사용자 : 88%</li> <li>- 27세미만 : 29%</li> <li>- 도서관 이용자 : 30%</li> </ul>	<p>2. 2017 에스토니아 청소년 및 청소년 문화의 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 : 에스토니아 문화부</li> <li>- 주최 : 에스토니아 아동문학센터</li> <li>-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에 대한</li> </ul> </li> </ul>
--	---

- 도서관 이용자 중 16세 미만 : 25%
- 도서관 : 947개 (공공도서관 540개, 과학도서관 44개, 학교도서관 363개)



- 대중의 관심 집중
- 연륜있는 저자, 청중이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가치, 다양성, 책임 등에 대해 토론
- 함께 만들고 행동하기
- 키워드 : 독립성과 협력을 통해 성인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작자와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게 됨
- 내용 : '나는 머무를 것', '어린이공화국 체험 여행', '50가지 아이디어' 등 행사, 공연, 대회, 콘서트, 워크숍 개최

### 3. 아동 문화 전략의 주요 원칙과 가치

- 유용성 : 아이들은 초기부터 예술과 문화를 경험해야 한다
- 접근성 :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문화서비스에 접근 할 수 있다
- 창의력과 교육 : 스킬 개발은 미술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 참여 : 창의적인 활동과 취미 씨클 활동
- 문화 : 우리 문화의 주요 기둥 중 하나, 다른 문화 분야를 지원한다

## 4. 'The development of the book report creation support game' / Japan '독후감 작성 지원 게임 개발' / 일본

<포스터 119>

### 1. 게임명?

Biblio Game KOKORO Saver2

(<http://www.slis.doshisha.ac.jp/KOKORO/>)

### 2. 게임개발자?

- 오카베 유키노리 (아이치 슈쿠 도쿠 대학)
- 하라다 다카시(도시샤 대학)
- 쇼 사토(도디샤 대학)
- DUALIS(도시샤 대학 도서관 정보 학회)

### 3. 게임 개요

- 독후감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여름 방학 기본 과제이다
- 학생들은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을 자유롭게 쓴다
-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독후감 작성법을 배우지 않고 독후감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 이 연구에서 우리는 독후감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임을 개발했다



#### 4. 게임 내용

- ‘책 선택’ 게임 :

게임의 스토리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스토리북 방식을 채택 하고, 책은 진행 과정에 따라 선택된다

- ‘책 이야기 이해하기’ 게임 :

캐릭터, 장면 및 항목에 대한 퀴즈와 스토리에 대한 퀴즈가 제공된다. 설문지 결과에 따라 독후감 주제가 표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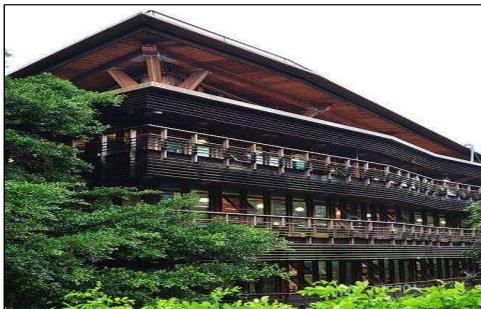
- ‘책에 에세이 쓰기’ 지원 :

게임이 끝나면 플레이어가 선택한 답변에 따라 5개의 제목이 표시되고 플레이어는 독후감을 작성한다.

### 5. Th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a green library - Taipei experience / [1] Tung-mei Shen / Taiwan, China

지속적으로 친환경 녹색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 타이페이 시립 도서관 베이더우 지점(Taipei Public Library Beitou Branch: 臺北市立圖書館)



타이페이 시립 도서관 베이더우 지점은 2006년 11월, 그린빌딩 인증에 필요한 9가지 지표를 획득한 대만 최초의 다이아몬드 레벨 녹색 건축 도서관으로, 목재와 철재만으로 지어진 건물로 모든 건축 자재가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이다. 또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 빗물 회수 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 설계로 유명한 건축물이다.

타이페이 공공도서관은 지구생태의 중요성과 환경교육을 위해 이 녹색 건물을 사용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건물 유지를 위해 다음 5가지 전략에 의거하여 계획하고 운영한다.

1. 나무와 강철로 된 이 혁신적인 도서관은 녹색 건물 인증 9가지 디자인 지표를 사용하여 사람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 도서관의 외관은 숲과 개울로 둘러싸인 큰 나무집과 비슷하며, 그곳은 처마와 야외 독서 장소가 있어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
3. 주변 생태환경은 지속적으로 개방시키고, 보존과 친환경 건축을 위한 서가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으로 도서 박람회와 영화제를 개최한다.
4.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녹색건축 도서관 투어는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된다.

5. 세계환경의 날과 함께, 도서관은 지역 생태환경과 관련된 책 읽기 행사를 개최하고,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있다.

※ 옥상에는 96개의 태양광전지를 설치하여 한 개의 광전지는 매 시간 170와트를 생산하고 건물 전체의 광전지들은 1시간에 1600와트를 생산한다. 매일 생산되는 전기량은 일반 가정의 2~3일간 사용하는 전기량과 같다. 테라스의 울타리도 특수한 환경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의 나무 격자 설계는 실내로 들어오는 복사선을 방지해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붕 위에 심은 잔디는 특수 배수 설계로 대자연의 물을 재활용해 식물에 물을 주고 화장실에서도 사용된다. 또한 도서관은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서 오염과 유독 물질의 방출을 줄이고 있다.

- 주소 : 台北市北投區光明路251號 / 연락처 : 02 2897 7682  
 - 개방시간 : 오전 8:30~밤 9:00 / 매월 첫번째 목요일, 공휴일 휴관

## 6. Connections and collaboration of 800 Libraries in Japan: Collaborative Reference Database / [1] Jin'ichi Kitano / Japan

일본 800개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협력참고데이터베이스

### ○ CRD란 무엇인가?

- CRD는 국립국회도서관(NDL)<sup>2)</sup>에서 구축한 참고 질의답변 데이터베이스로 지나간 참고 질문과 일본 전역의 여러 도서관에서 수집한 답변내용들을 담고 있다.

### ○ CRD 운영 목적

- 축적된 참고 질의답변서비스는 고객과 사서들의 연구 활동에 사용되고, 색인도 작성되며,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20만장 기록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이용가능.

○ **회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기록보관소 일본국립도서관 및 분관  
 ⇒ 2005년에 390개도서관 ⇒ 2017년 760개관으로 증가

1. 회원도서관은 CRD안에서 참고질의내용을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
2. 회원도서관은 CRD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다.
3. 이용자들은 다른 정보뿐만 아니라 타 이용자의 질의답변도 찾을 수 있다.

○ **등록데이터:** 21,155(2005년) ⇒ 205,958(2017년)

○ **참고질의에 포함되는 사항:** 도서관명, 질의 및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프로세스, 참고문헌 등

○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에 대한 접근은 레벨을 지정하여 통제할 수 있으며, 회원도서관은

2) 국립국회도서관國立國會圖書館(NDL) : 1948년 설립된 일본의 입법부인 국회에 속하는 국가 기관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회 도서관이다. 동시에 법정 납본(納本) 도서관으로 일본 유일의 국립 도서관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행정 사법 부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지부: 국제어린이도서관, 대법원도서관)

해당 데이터 접근 수준을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접근 수준	이용 대상
일반 접근	모든 도서관 이용자
회원도서관	회원도서관 이용자
일반도서관	데이터를 등록한 도서관 이용자



○ CRD 개선을 위한 NDL의 계획

회원도서관	비회원도서관과 일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레코드 등록 지침 작성</li> <li>• 조직적인 세미나, 포럼, 워크숍</li> <li>• 전자메일 잡지 게재</li> <li>• 대용량 데이터를 등록한 도서관 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D를 홍보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li> <li>• 트위터를 통한 CRD 홍보</li> <li>• 참고서비스의 이용과 참가 홍보를 위해 마스코트와 상품을 제작</li> </ul>

○ 포스터 세션 참가자 모습



## V 참가단 주요 활동

### 1. 한국어 참가자 모임(8월 24일<금> 19:00, Room 302)

한국어 참가자 모임은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가한 참가단과 한국어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 모임이다. 이날 모임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서유원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신기남 위원장 환영사>



<이상복 협회장 환영사>

신기남위원장께서는 11년 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을 주도 하셨지만, 이후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고심 끝에 수락한 만큼 한국의 도서관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약속의 말씀 중에는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3차 5계년 계획이 수립(연구)중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이상복협회장께서는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의 테마(케치프레이드)인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다함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도서관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도서관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보자는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유명하 국립장애인도서관 서서와 박호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디지털부 주임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유명하 사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책나래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책나래 서비스는 등록장애인(2,545,637명 : 2017년 12월 말 기준)과 장기요양자, 국가유공상의자를 대상으로 책을 택배로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물론 왕복 택배비는 도서관에서 부담한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고 병들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할 서비스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운영아 사례발표>



<박효진 사례발표 : 고려대학교 CCL>

이어서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박효진 주임은 CCL(CJ CREATOR LIBRARY)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도서관명칭 앞에 있는 CJ는 CJ그룹이 도서관건립에 상당금액을 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7년 5월에 문을 연 이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해 학생들이 토론하고 춤추고, 생각하는 콘셉트로 설계됐다. 카페처럼 꾸며진 공간에는 기존 도서관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호응이 크다고 한다. 학생들이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마루쉼터, 낙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계단, 나만의 극장 브라우징 룸, 카페보다 편안한 라운지, 토론하고 협업하는 공부방, 혼자 또는 함께 미디어 생산이 가능한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름은 도서관이지만 복합 휴게 공간에 가깝다. 이 도서관은 학교 측이 지난해 '이상(理想)한 도서관'을 주제로 도서관 공간 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현대사회가 또는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간 중 한 부류는 창조적인 인간일 것이다.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도서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서관을 좀 더 창조적으로 꾸미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은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려대학교 CCL : 마루쉼터>



<고려대학교 CCL : 쿠션 룸>

한국어 참가자 모임이 끝나갈 무렵 국제도서관협회연맹회장인 글로리아 페레스 살레론(Gloria Pérez Salmerón) 전 스페인국립도서관장이 방문하여, 환영사를 해주셨으며, 이후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한국어 참가자모임 : 기념사진>



<국제도서관협회연맹회장 환영사>

## 2. 한국인의 밤(8월 24일<금> 20:00, Impiana hotel 1층)

2018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화대회에 참가한 한국인 참가자들의 모임인 “한국인의 밤”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Impiana hotel에서 열렸다.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이 모임에는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은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대회기간 중 각국에서 참여한 도서관인들과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개인별로 또는 팀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도서관협의회 참가단은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고, 각자 자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한국인의 밤 행사장 모습>



<참가단 : 인사 및 소개>

이어서 ‘한국인의 밤’ 참가자들은 그룹별로 모여 앉아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신기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상복 한국도서관협회장께서 테이블 마다 돌아다니면서 참가자들에게 와인을 따라 주시고, 도서관의 현안사항청취와 참가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분위기를 띄워주셨다.

### 3. 대회 개최식(8월 25일<토> 10:30, Plenary Hall)

2018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식은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 내에 Plenary Hall에서 열렸다. 개최식은 말레이시아 전통공연으로 화려하고, 장엄하게 그 시작을 알렸다. 많은 참가자들은 그 황홀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빠 보였다.



<말레이시아 전통공연>

처음으로 DATO NAFISAH AHMAD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과 Mhd Amin Nordin Abdul Aziz 쿠알라룸푸르 시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대회조직위원장의 환영사>



<쿠알라룸푸르 시장의 환영사>

국제도서관협회연맹에서는 글로리아 페레스 살레론(Gloria Pérez Salmerón) 회장의 개회사와 제럴드 레이트너(Gerald Leitner)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사무총장>

이어서 다뚝 모하마딘 쉐타피(Minister Datuk Mohamaddin Ketapi) 말레이시아 문화예술관광부 장관의 인사말과 알리 함사(Ali Hamsa) 말레이시아의 정부 수석 장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문화예술관광부 장관>



<말레이시아 수석장관>

기조연설은 말레이시아의 도서관을 발전시킴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사회변화를 이끌겠다는 내용이였다. 이를 위하여 독서 및 지식 문화 창출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 약속의 실천방안으로 첫째 독서 및 지식문화 창출의 모범 사례와 서비스를 홍보하고 제공하며, 둘째 도서관의 확충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에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셋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 활용능력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개설하겠다고 하였다.

말레이시아 수석장관의 기조연설에 이어서 두 번째 공연이 전통공연 있었다. 두 번째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함께한 멋진 공연이였다. 공연의 자세한 의미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느끼기에 말레이시아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 같았다. 무엇보다 공연 후에 대형화면에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가 나타나자, 도서관인 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도서관발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는 사명감 또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였다.



<과거와 미래가 함께한 공연>



<공연의 엔딩>

마지막으로 마하티르 빈 모하맛(Mahathir bin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께서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며, 주요내빈과 공연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개회식이 마무리되었다.



<말레이시아 총리의 축하영상>



<공연 후 기념촬영>

#### 4. 전시회(대회기간 중, exhibition hall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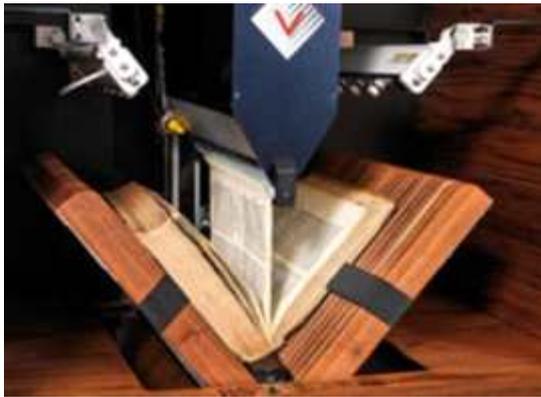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해서 전시장을 찾을 때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곤 했던 기억이 생각났다. 어느 해에는 전자책 업체가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어느 해에는 RFID 시스템, 또는 가구업체 등이 많이 참여하기 한다.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번 2018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전시장에는 도서관자동화 관련 제품이 많이 전시되어 홍보되고 있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기업인 ST Engineering과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SENSERBOT이었다. 현재 시판을 위하여 시험가동 중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율장서점검로봇을 도입한다면, 매일 같이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잘못 꽂혀진 책을 찾아 올바르게 배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코드가 훼손된 책을 찾아서 재정리할 수 있고, 이용이 많이 되는 책과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 구입 및 보존도서관으로 이관할 책을 손쉽게 선별함으로써 인력 절감 및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스캔 화면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자율장서점검 로봇>

다음으로 장서보존공간이 부족한 도서관들이 손쉽게 원문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AUTOMATIC BOOK SCANNER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스캔하기 위하여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스캔하기 위하여 책등을 절단할 필요도 없었다. TREVENTUS의 SCANROBOT은 시간당 최대 3,000페이지를 스캔할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4DigitalBooks SCANROBOT은 컬러로 인쇄된 책을 스캔하는데 적합해 보였다.



<TREVENTUS의 SCANROBOT>



<4DigitalBooks SCANROBOT>

이밖에도 심플한 디자인의 도서 자동반납기와 얼굴인식시스템을 장착한 게이트 또한 눈길을 끌었다.



<도서 자동반납기>



<얼굴인식 게이트>

어느 도서관에서 설치한 홍보부스를 돌아보던 중 인상 깊은 캐치프레이즈를 발견하였다. ‘Library as My Second Home’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부스를 설치한 Selangor Public Library는 쿠알라룸푸르에서 25km 정도 떨어진 Shah Alam(Selangor의 주도로 인구는 2017년 기준 740,750명이다.)에 있는 셀랑고르주의 주립도서관이다. 사진으로 본 도서관의 모습은, 집보다 훨씬 더 편안한 공간인 듯 보였다. 이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추구할 공간구성의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셀랑고르 공공도서관의 홍보부스>



<도서관의 내부모습>

전시장 또한 'Library as My Second Home'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편안한 쇼파에서 잠시 쉴 수 있고, 오픈된 형태의 마사지 샵에서 말레이시아 전통 마사지를 받으며 피로를 풀 수 있게 배려하고 있었다.



<전시장내에 설치된 쇼파>



<유료 마사지 샵>

이밖에 말레이시아의 전통 목공예와 전통문양의 가방을 만드는 모습을 시연해 보여줌으로서 말레이시아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나무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모습>



<가방을 만드는 모습>

5. 문화의 밤(8월 27일<월> 19:00, malaysia tourism centre)

참가 3일째 되는 날 밤,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말레이시아 투어리즘 센터’에서 ‘문화의 밤’이 진행 되었다.



<투어리즘 센터의 안내도>



<투어리즘 센터의 메인 건물>

말레이시아는 헌법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종교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다. 정치형태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서 인지, 각 주의 이슬람 수장인 술탄들이 모여서 5년 임기의 국왕을 임명하고, 이렇게 임명된 국왕이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거 군주제 국가이다. 과거에는 국왕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이 가장 많은 다수당의 당수를 형식상 국왕이 임명하고 있으며, 이 수상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민주국가이다.

이슬람교인 들은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물론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간 모두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여기에는 ‘췌코파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투어리즘센터의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 와인과 맥주를 행사 참가자에게 무제한 제공하는 융통성 또한 있었다.



<와인과 맥주를 제공하는 장소>



<음악(술)과 함께 담소하는 참가자>

주최 측에서는 수천 명의 행사참가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건물과 인력을 동원하였다. 그중 하나가 주차장에 설치한 거대한 텐트가 인상적이었다. 더운 날씨를 고려하여,

대형 선풍기를 설치한 것 또한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었다.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는 장소의 한계성으로,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의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말레이시아의 전통춤을 추는 팀의 공연, 클래식한 음악을 연주하는 팀의 공연,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통무술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광대>



<대형텐트 안에서 담소하는 참가자>

또한 공연 중간 중간에 공연 팀이 행사에 참여자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배려함으로써, 행복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전통 춤 공연>



<공연자들과 기념사진>

일부 국가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전통복장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 참가단도 태극기와 전통복장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VI 도서관 견학



### 1.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 : <http://www.pnm.gov.my/>>

개관년도 : 1956년도

국가/도시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주소 : 232, Jalan Tun Razak, 50572 Kuala Lumpur, MALAYSIA

시설현황 : Anjung Bestari(본관), PNM Tower(별관)

회원등록 : 무료가입 (유효기간 3년)

대출권수 : NLM회원 6권, u-Pustaka 회원 3권 (총 9권, 4주이내)

자료현황 : 총 5,327,281권(2017년 기준)

이용시간 : 화요일~토요일(10:00~19:00), 일요일(10:00~18:00), 공휴일 휴관

#### ○ 도서관 특징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은 원래 1956년 결정된 '말레이 안도서관그룹(Malayan Library Group)'이 국가적 수준의 공공도서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도서관 설립을 검토할 실무그룹으로 제안한 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에 의해 그 설립이 시작됨.

1992년 이전의 현재의 도서관 건물과 지붕은 말레이시아의 정체성을 반영하고자 말레이시아 전통모자, 옷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성된 독특한 외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구내식당, 기도실,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 주요 자료실 소개

##### - 삼성 스마트 도서관

본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과 삼성전자 간의 협력 사업으로 말레이시아의 IT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스마트 도서관은 특별히 설계된 응용프로그램이 있는 삼성기기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인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디지털 액세스 경험을 제공해 줌.

전자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은 아동(Kids), 상호작용(Interactive), 독서(Reading), 작업(Work)라는 4개의 컨셉에 따라 마련되어 있으며, 방문자들은 다양한 모델의 태블릿 PC와 대형 모니터를 포함하여 60여개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음.

##### - 희귀서 자료실

별관 10층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오래된 1631년도 출판물을 포함하여 1900년 이전의 출판물과 말레이시아 또는 해외에서 절판된 희귀한 출판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보존, 연구 및 참고를 목적으로 선정된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음.

- 고서 자료실

별관 11층에 위치해 있으며 1983년 말레이 정부로부터 고대 필사본 권한을 부여 받음.  
 말레이 필사본은 말레이어를 사용해 수기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16세기 초에서 20세기까지의 자료로 초기 34개의 필사본에서 현재는 5천개의 필사본 자료가 보관되어 있음.  
 말레이 필사본은 시와 산문을 포함한 문학 장르에서 부터 역사, 종교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두 책이 보관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밀실공간에 보존하고 있으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기간 중에 전시가 되어 볼 수 있었음.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 전경



도서관 안내



삼성스마트 도서관 내부



삼성스마트 도서관 어린이실



고서 자료실



희귀서 자료실



## 2. 싱가포르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Singapore)

<홈페이지 : <http://www.nlb.gov.sg>>

###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개요

싱가포르 중심부의 부기스 지역 빅토리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도서관 건물은 면적 59,000㎡, 지상16층, 지하 3층으로 2005년 7월 22일 신축, 개관하였다. 이 건물에는 국립도서관, 센트럴 공공도서관(지역도서관) 등 2개의 도서관과 대학, 극장, 국립도서관위원회, 정부기관 등이 같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한 건물 내에 여러 기관이 공존하는 이유는 현재 싱가포르에는 학교 및 기관을 포함해 31개의 도서관이 정부기관 관리 하에 일관된 시스템으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된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모든 도서관과 연결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건물과 숲의 공존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의 특징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 지식의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 독특한 건물 설계로 말레이시아 출신의 세계적 생태건축가 켄 양(60)의 작품이다. 햇빛과 빗물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친환경 설계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인 만큼 규모가 크고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조용하다. 싱가포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다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인 도서관 건물의 지상은 두 블록으로 구성되어 층마다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이동 또한 편리하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다양한 전공 자료들은 물론, 신간도서까지 찾아 볼 수 있으며 회원 확인 없이도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책을 빌릴 수는 없지만, 스터디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서를 읽고 바로 반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반납대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으로 이용시간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 ○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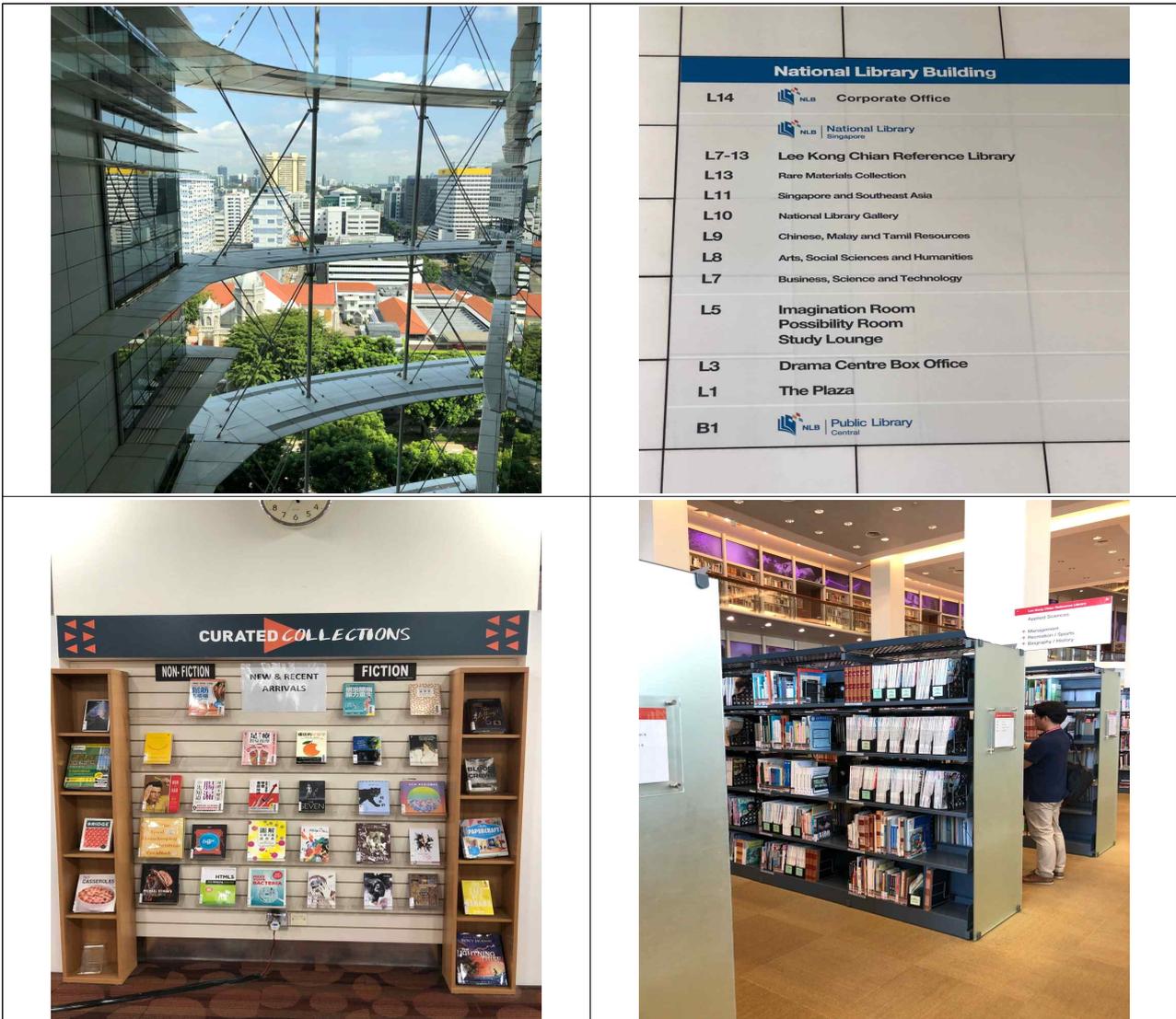
모든 버스가 다 통과하는 좋은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설계되었다. 지하 1층은 센트럴 공공도서관으로 비즈니스, 문학작품 등을 비치하여 문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도서 외에도 영상물이나 음악 등 시청각 자료도 개방된 공간에서 열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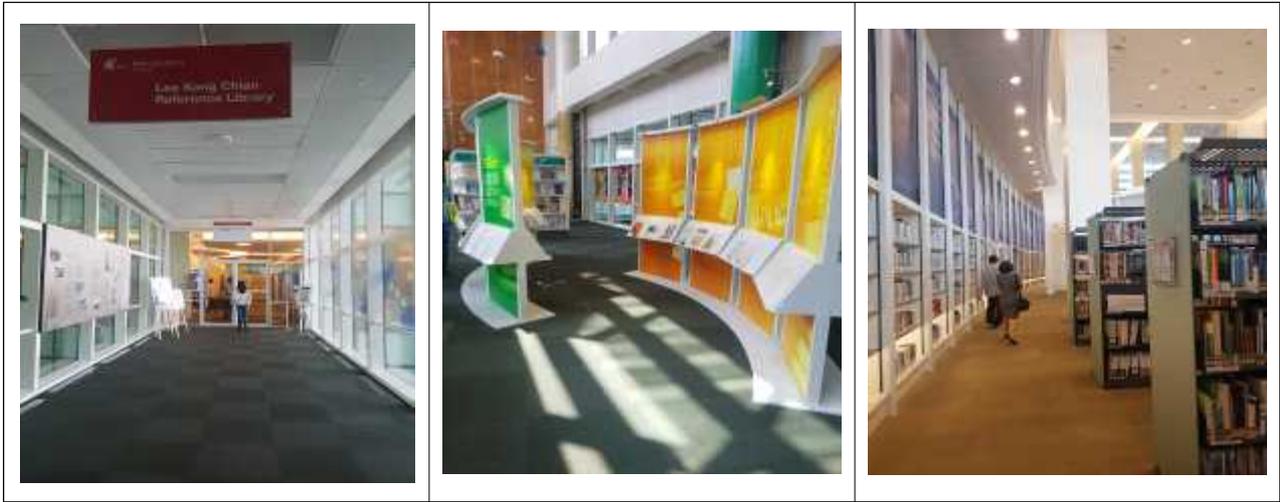
다민족 다국어 나라인 만큼 도서관 자료들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로 구성되어 있고 자료분류는 DDC에 의해 정리되어 있다. 자료실에는 한국대사관에서 기증받은 한국도서와 프랑스와 MOU 체결로 기증받은 프랑스 도서도 비치되어 있다.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국립예술위원회가 관리하는 드라마 센터가 있다. 지상 7층부터 13층까지는 이공찬 참고정보관(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으로, NLB가 개관되면서 참고정보관의 명칭을 Reference Services Division(RSD)에서 Lee Kong Chian Reference Library로 변경하였다. Lee Kong Chian 일가는 많은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이 참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물 형태로 제공된다.

7층은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순수과학 및 기술과학 자료실이며, 8층은 예술 및 비즈니스 자료실, 9층은 중국, 말레이시아, 타밀 자료실, 10층은 기부자 코너, 아시아 어린이 자료실과 다양한 전시도 열린다. 11층~12층은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실, 13층은 희귀본 자료실로 일반인의 접근은 되지 않는다.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14층은 NLB 사무실, 16층은 전망대로 활용되고 있다.

- 싱가포르국립도서관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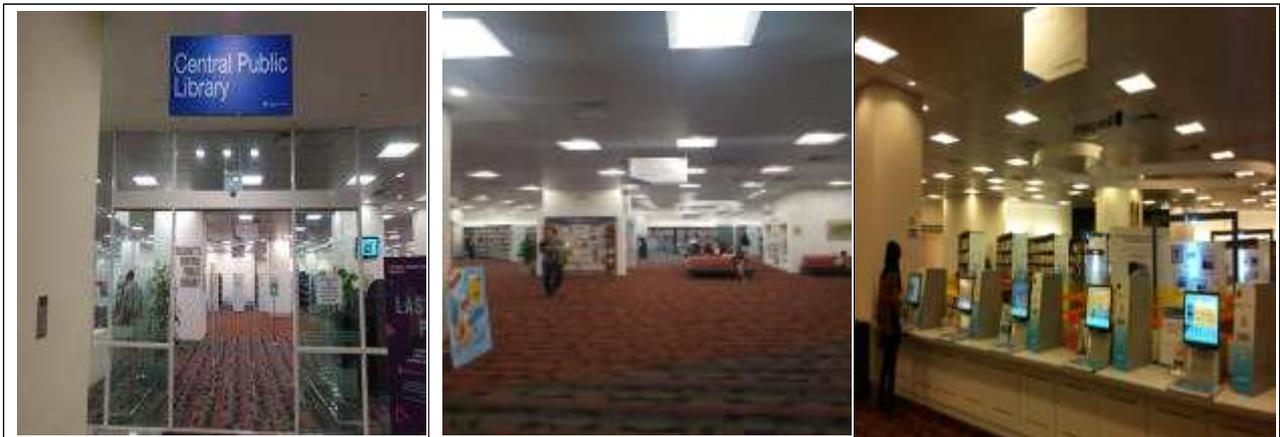




### ○ 싱가포르 센트럴 공공도서관 시설이용 가이드

중앙대출실에는 Library e-Kiosk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도서관 이용방법, 대출 및 기타 설문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FID System운영으로 도서와 비도서에는 전자칩이 부착되어 있어 열람과 대출을 이용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모두 기계 시스템화 되어 있다. 자료 대출은 회원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유아는 멤버십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어느 도서관에서 빌린 자료이든 이용자가 편한 도서관에 반납처리가 가능하며 자료를 연체할 경우 돈으로 과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납부한다. 무인대출반납 코너는 PC와 작은 단말기를 놓아 공간 활용과 동시에 이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중국 무협지 등 시리즈 도서는 한꺼번에 대출할 수 있도록 시리즈 전체를 고무줄로 묶어서 서가에 정리하여 이용자가 대출할 경우 대출 권수도 한권으로 처리 된다.

도서관홈페이지에선 ‘전자자료’ 메뉴를 클릭하면 도서관의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신문 등의 전자자료를 모아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게 되며, 자료유형, 이용대상, 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되어 있다.



○ 도서관 속의 도서관으로 'My Tre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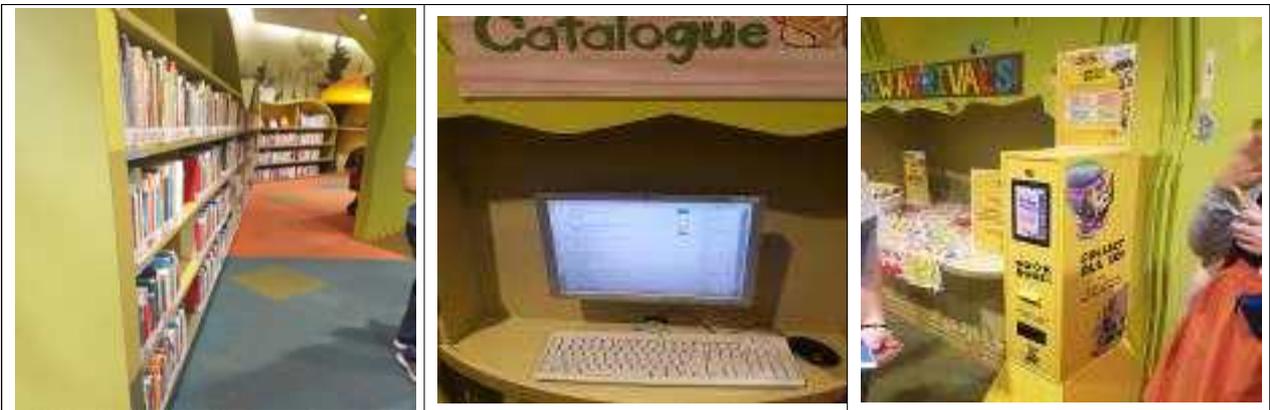
세계 최초 어린이들을 위한 그린 라이브러리이며, 그린 라이브러리인 만큼 생태에 관한 책, 환경관련 책이 전체 아동도서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동화 속 나라처럼 자연친화적인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맘껏 돌아다니며 책을 읽을 수 있어 어렸을 때부터 책과 친구가 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공간이다. 볼거리가 풍성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전시에 쓰인 장식용은 그린라이브러리에서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도서 4권을 대출하면 책에 관련된 카드가 출력되는 노란색 기계는 책도 읽고 카드도 모을 수 있어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해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 상품은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많이 구비되어 활용되고 있다.

○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의 일꾼 '사서'

사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스토리텔링 등 운율이 있는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한다. 'My Tree House'에서는 스토리텔링은 일주일에 2회, 기타 프로그램은 한 달에 1회 정도 운영하고 있다. 도서구입은 사서들이 책을 선정하면 도서 셀렉팀에서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최종 결정하여 구입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별·연령별로 4단계<0세~6세, 7세~17세, 성인(18세~50세), 성인(시니어)>로 나누어서 그룹별로 전문사서를 두어 프로그램 개발, 장서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만 담당하며 행정업무는 행정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다.



## Ⅶ 참가 후기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참석한 2018년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탐방하여 선진도서관의 최근 발전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서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도서관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문화와 지식, 사회적 구심체로서 인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온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고 나라 발전의 가장 중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할 것임을 새삼 느꼈다.

### <참가후기 1>

사서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고 싶어 하는 WLIC를 드디어 올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선생님들과 WLIC 기간 동안 한 팀으로 참여해야 돼서 낯선 사람과 10일 동안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걱정이 살짝 들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어색한 첫 만남 뒤로 다들 알고 보니 어찌나 유쾌하고 좋으신 분들인지. 이번 출장은 WLIC 참여로 여러 나라의 사서들도 만나고 도서관 관련 업무, 프로그램 등 내가 알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여러 선생님들을 알게 된 것에 가장 감사한 마음이 든다.

전 세계의 사서들과의 만남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대회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낯설었던 그들은 같은 사서라는 소속감 때문인지 다들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냈다. 말투와 눈빛에서 그들의 친절함이 느껴졌고 나 또한 같은 사서라는 동질감에 낯선 그들이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들었던 세션들은 다 유익한 내용이었는데 통역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통역을 거치지 않고 발표자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정말 한국 가면 영어공부를 꼭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개막파티와 문화의 밤 행사로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 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춤은 모두의 눈을 즐겁게 하고 흥을 달아오르게 했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은 타국에서 한국인을 만났다는 또 다른 반가움을 안겨주었다.

2018년 WLIC의 슬로건 "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처럼 세계의 도서관들은 지속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도서관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껏 사서들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선진도서관과 비교하면 아직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다른 나라 사서들의 도서관에 대한 열정 또한 보고, 듣고 많이 배웠다. 많은 사서들에게 WLIC에 꼭 참여하라고 적극 추천하고 싶다.

### <참가후기 2>

처음 가는 공무상 해외출장이라 낯설과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좋았다. 특히 세계도서관정보화 대회는 세계의 도서관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인지라 공공도서관사서로 글로벌한 동질감을 느꼈다. 프랑스사서가 소개한 이동식미디어박스, 도서관 홍보를 위해 망가지고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SNS를 하는 사서의 모습, 사서들의 달라진 복장, 세계 사서들의 패션쇼 등 새롭고 다채로운 내용을 경험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영어가 부족하여 세

선과 포스터세션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의 사서들과 소통하기 힘들었지만,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교류 할 수 있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 <참가 후기 3>

2018년 올해의 공공도서관의 최종 후보지에도 올라온 싱가포르 템피니스 공공도서관(Tampines Regional Library)를 시간을 내어 방문했다. 이 도서관은 기존의 단독 도서관 건물에서 상업지역으로 이주한 싱가포르의 첫 번째 공공도서관이다. Bukit Merah Public Library는 내년Vivo City로 내년에 재개관을 준비 중이고, Yishum Public Library 역시 Northpoint City로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템피니스 공공도서관은 관내에 쿠킹 스튜디오와 조깅 트랙을 설치하고 축구장과 쇼핑몰이 함께하는 혁신적인 도서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시설로 도서관 이주를 추진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적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일상생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이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조깅을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림책을 좋아하는 어린이, 외국어를 배우려는 이주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모든 이들의 관심과 이익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슈퍼 라이브러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참가후기 4>

2018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사서들의 위상과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슬람국가라서 회잡, 니갑 등을 쓴 사람, 흑인 백인 등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 변화하는 도서관, 변화하는 사회(Transform Libraries, Transform Societies)”라는 공통된 주제로 열띤 토의와 연구 발표하는 모습은 ‘사서는 하나다’라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뭔가 통하는 마음이었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독서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요 관심사였다.

또한 사전모임을 통하여 각자 관심분야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세션을 들었으며, 포스트세션도 통역사와 같이 현장감 있게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묻고 하는 재미와 열정은 모두를 즐겁게 하였다.

세계도서관대회는 사서들의 역량 향상과 함께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고 다른 나라 사서들의 생각을 듣고 선진도서관도 보는 멋진 기회인 것 같다. 특히 싱가포르의 도서관처럼 친화적이고 시설이 좋은 도서관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설립되어 도서관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끝.